

8월 배추값 큰 폭 상승에 '비상'

생필품 판매가격 분석 결과 무 양파 쇠고기 오르고 돼지고기 하락

8월 생필품 가격 동향 중 배추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www.price.go.kr)'을 통해 수집한 8월 생필품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전월대비 주요 신선식품 5개 종 배추, 무, 양파, 쇠고기는 상승한 반면 돼지고기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신선식품의 가격동향을 보면, 배추(63.7%)가 전월대비(3,239원→5,308원)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어 무(29.2%, 1,764원→2,279원), 양파(5.3%, 3,056원→3,217원), 쇠고기(3.8%, 8,283원→8,601원) 순이었다. 반면 돼지고기(-11.2%, 2,257원→2,005원)는 하락했다. 특히 폭염과 기름 등으로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8월 대비 9월 첫째 주 평균판매가격도 배추 42.5%, 무 26.5%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주요 신선식품(5개)의 평균판매가격을 업태별로 살펴보면,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배추(3,702원)는 대형마트가 저렴했고, 무(1,697원), 양파(2,429원), 쇠고기(6,143원)는 전통시장이 저렴(1,188원)은 SSM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생필품 가격정보를 주간단위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동일한 제품이라도 판매점에 따라 가격차이가 큰 만큼 생필품을 구입하기에 앞서 '참가격' 사이트에서 판매가격, 할인정보(1+1 행사) 등을 확인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신평영 기자



생필품 간편 쇼핑 서비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장동현)이 11번가와 함께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생필품을 주문·결제·배송해주는 '스마트 버튼'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30일까지 과적차량 집중 단속 실시

의산국토관리청 전주사무소

서 및 지자체 등과 협동으로 실시 한다.

이번 협동단속에서는 과적차량뿐만 아니라 적재중량 초과차량, 적재불량 차량·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현장 협동단속은 화물차·통행이 빈번한 도로 및 우회도로·길목 등에서 불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신평영 기자

전주시 '행복나눔 푸드마켓'으로 나눔 전파

식품·생필품 등 기부받아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지원

전주시가 기부식품으로 지원하는 '행복나눔 푸드마켓'이 식품 및 생활용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한울안 원광모자원이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행복나눔 푸드마켓'은 개인과 단체, 기업 등에서 식품과 생필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슈퍼마켓 형식의 기부식품 지원사업이다.

행복나눔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원광모자원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 중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700명이 이용하고 있다.

지난 7월 심사를 통해 선정된 이용회원들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회원카드를 이용해 매월 1회 푸드마켓에서

는 조영례 원광모자원장은 "기부는 자기를 위한 또 다른 '힐링'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푸드마켓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기부자를 확보하고 양질의 기부물품을 이용회원들에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생활복지과 관계자는 "푸드마켓 사회복지서비스는 재난·단체, 개인 등이 여유가 있는 식품 및 생활용품을 부족한 분들과 나눠쓰도록 연결해주고 있다"며 "푸드마켓 사업이 더욱 활성화돼 양질의 기부물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푸드마켓 이용회원은 "푸드마켓에 오면 필요한 물품을 무료로 구입할 수 있고 덤으로 야채와 빵 등을 많이 쟁겨줘 헌동안 반찬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어서 좋다"고 이용소감을 밝혔다.

/김영재 기자

이스타항공, 오사카 노선 10월 한달동안 14회 증편 운항

이스타항공을 통한 오사카여행과 국내 여행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현재 왕복기준으로 오사카 노선 일일 2회 운항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10월 한 달 동안 14회(왕복기준) 증편 운항한다.

소비자들의 수요충족을 위해 최근 추석 연휴 동안 국내선(김포·제주, 부산), 국제선(인천·오사카, 코타키나발루)

루) 노선을 증편 운항 했던 이스타항공은 이번 10월 증편을 통해 소비자들의 시간 선택권을 다시 한 번 확장할 예정이다.

국내선의 경우 개천절 연휴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국내선(제주 김포 부산)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 까지 3일간 총 8회 증편 운항하며, 김포·부산 노선도 연휴 기간 동안 총 10회를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 신청 접수

전북지방중기청, 23일까지

최종 선정기업은 정부지원비율 70% 이내에서 연간 최대 2,500만원의 해외시장 진출준비활동 및 마케팅활동 등의 세부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수출기업화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달 23일까지이며 조선 및 조선기자재 업종,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 예정이다.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 관련사항은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063-210-6485)로 문의하면 된다.

/신평영 기자

도내 소상공인의 홍보마케팅 지원한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은 이달 30일까지 도내 소상공인들의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맞춤형 마케팅(하반기)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경진원 창업교류(희망 창업, 시니어·혁신형 기술창업, 4060 행복창업 프로젝트 등)을 수료하고 창업한 도내 소상공인이다.

선정은 15개 업체가 대상이고 업체당 최대 150만원(자부담 30% 별도)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전단지, 명함, 쇼핑백,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버스·택시 광고, TV·라디오 광고, 생활정보지 등 홍보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들의 마케팅 활동이다.

/신평영 기자

전북개발공사 '김영란법'

시행대비 청렴교육 실시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19일 공사 대강당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대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앞서 공사 임직원들은 업무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알선·청탁을 받지 않고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을 했다.

또한 공사의 청탁방지담당관이 강사로 나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및 적용범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14가지 유형 및 예외규정 등을 교육했고 예시를 통해 직원들의 관련 법규 숙지를 도왔다.

공사는 앞으로 청탁리플렛과 포스터 등을 제작·공시시켜 내부에 비치해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는 물론 방문고객에게 부정청탁 근절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북개발공사 고재찬 사장은 "앞으로 청렴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부정청탁 방지, 근절을 위한 내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평영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R&D지원 설명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백두옥)는 20일부터 도내 창업보육센터와 출연기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R&D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1억 5,000만원 이내의 R&D개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설명회는 20일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시작으로 전주대, 원광대, 전북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원주) 입주기업을 방문한다.

사업내용과 지원대상, 전북 R&D 종합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중소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R&D지원사업 신청은 10월 7일까지 온라인 R&D 종합 시스템 (<http://md.btp.or.kr>)에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현장설명회와 선정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11월 중에 최종 지원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설명회는 전북테크노파크 미래 기획팀(063-219-22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평영 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